

수능시간 맞춰 공부하며 실전감각 키워라

수능 D-9...대비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다시 정리 오답노트 중심 틀린 문제 복습 결과 두려워 말고 긍정적 사고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곧 치를 수능에 앞서 불안감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입시전문가들은 "마음은 급해지고 공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격정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제 하루하루가 '수능모드'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우선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능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국어→수학→영어→한국사 및 탐구영역→제2외국어 및 한문 순으로 진행된다. 수능 당일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이 순서에 맞춰 공부하는 것도 좋다.

가능하면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완벽하게 조율한 장소보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등 실제 시험에서 작은 소음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 학습...틀린 문제 다시 보자-오답노트 중심으로 점검하고 취약단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다. 올해 가장 많이 봤던 교재를 빠르게 훑어보지만, 세세하게 파고들지 않

도록 하고, 지난 6월·9월 모의고사를 다시 확인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올해 신유형 문제를 점검하고,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 풀면 남은 기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고, 눈에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손때 묻은 문제집에 시간을 할애하라는 뜻이다.

연계 출제되는 EBS 교재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기보다 지문과 문제 유형을 점검하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EBS 교재가 있어도, 무리하게 풀기보다 취약한 단원과 부족한 유형의 문제들만 풀어보는 게 짧은 시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EBS 교재는 문제 오류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오표 확인은 필수다.

◇마인드 컨트롤이 실전을 좌우한다=아직 치르지도 않은 수능 결과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힘들고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수험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열심히 했으니 잘 될 수 있다', '아는 것만 풀어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 등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학습 의욕과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점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보다 지금까지 노력했으니,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긴장만 유지하는 것이 좋

다. ◇밤에는 잠을 자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의 마음에 밤을 새워 공부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낮에 피곤해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오전부터 낮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밤에 공부하고 낮에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이 되면 수능 당일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적절하게 잠을 취하는 게 '백락치기'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명심하자.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열을 앞둔 4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지대 아니다

희망학교 44곳만 폐시약 수거 폐기 않은 폐시약 3695kg

전국 학교에서 포르말린 등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화학물질을 제때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 과학실험실 폐시약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재까지 전체 313개 학교 중 희망 학교 44곳에서만 폐시약 3693kg, 액집표본(포르말린) 2931kg을 수거해 폐기했다.

광주 초·중·고 과학실험실에서 아직 폐기하지 않은 폐수는 5922 l, 폐시약은

3695kg, 액집표본은 3244kg에 이른다. 액집표본은 개구리, 뱀 등 생물을 해부해 포르말린 용액에 보관한 것이다. 포르말린은 폼알데하이드 수용액으로 독성이 강해 호흡근과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최근 나주를 비롯해 서울, 안동, 수원 등 전국 일선 학교 과학실 등에서 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제때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화학물질 수거에는 3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80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재 예방 안한 공사장 등 112곳 처벌

안전보건공단, 17곳 과태료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112곳을 입건하는 등 형사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16일~10월 10일 전국 건설 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 2만 5818곳에서 순찰 활동을 했다.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383곳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112곳을 처벌하고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광주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설현

장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발판과 안전간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9일 동안 작업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강화했지만,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 폭이 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수차례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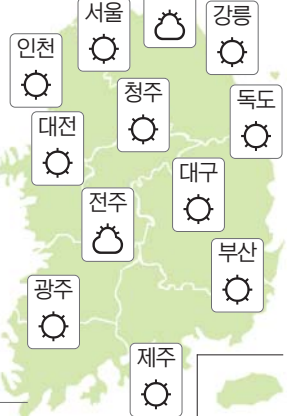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달뜨기 14:06
해질 17:35 달지기 --:--

큰 일교차

중국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0/20	보성	맑음	6/19
목포	맑음	12/19	순천	맑음	10/21
여수	맑음	12/20	영광	맑음	8/19
나주	맑음	8/20	진도	맑음	10/19
완도	맑음	12/20	전주	구름많음	9/19
구례	맑음	8/20	군산	구름많음	8/19
강진	맑음	8/20	남원	맑음	8/20
해남	맑음	7/20	흑산도	맑음	13/18
장성	맑음	8/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서~북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북동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1:37	07:42
13:16	20:44	
여수	08:40	02:54
23:12	16:28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	☁	☀	☀	☁	☀	☀
8/20	8/18	5/16	6/17	6/17	10/17	8/17

스타벅스 전산 오류에 이용자 불편 잇따라

스타벅스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4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25분간 스타벅스의 전국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스타벅스 매장 주문 시스템이 멈춰서는 장애가 발생했고,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오더'도 사용할 수 없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3가 스타벅스 광주충장로점을 찾았던 회사원 박모(32)씨는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미리 사이렌오더로 주

문을 하고 매장을 찾았지만 아까운 시간만 버리고 발걸을 돌렸다"며 "주문취소와 환불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스타벅스관계자는 "2019 스타벅스 더블 플래너 이벤트(플래너 1+1) 마지막 날인 탓에 주문량이 쏟아져 서버가 견디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는 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점심시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전국에 13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에는 51개 매장이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신원 확인 기여 윤창록 조선대교수 과학수사 대상

세월호 희생자 신원 확인 등 과학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대 치의학과 윤창록 교수 등이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1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조선대 윤창록 교수, 동국대 한면수 교수, 부산지방경찰청 정창규 경감에게 '과학수사 대상'을 수상했다. 법의학 분야 수상자인 윤 교수는 1989년 리비아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 참여해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11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인쇄광고 부문 최우수상

좋은 건강은 윤이 아닌

'기름'이 기름이 '기름'

건강은 굴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생활속의 체육으로 당신의 건강을 만들어보세요.